

이 세상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사람은 어느정도일까? 담배를 피우는 쪽이 좋을까 피우지 않는 쪽이 좋을까. 이와같은 질문은 그다지 답하기 쉽지않다. 그러나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장소에서 담배 피워도 좋은가 하는 것이다. 금연구역에서 금연을 하고 흡연구역에서 흡연을 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장소의 제한에 문제 있는 것이다. 물론 장소의 제한이 확실해도 지키는 사람이 없다면 더욱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있는 장소라든지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나도 물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만 금연장소에서는 거의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여자도 있습니다만 대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만의 예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흡연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이전에 흡연에 관한 캠페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캠페인이 많습니다만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캠페인을 한다면 흡연의 인구가 감소할것같습니다.

금연의 캠페인은 흡연을 하는 사람에게 충분히 인식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담배는 보통 술을 마실 때 더욱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보면 담배의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의 장소에서도 지나친 흡연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많은 나라에서 흡연에 관한 관심이 크기 때문에 담배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흡연에 관한 부작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서 흡연자에게 인식시켜 주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